

2

한국병합 전후 한국신종교 창시자들의 일본관

—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박광수



- (위) 충남 공주 우금치 전적지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수운 최제우, 증산 강일순의 묘역, 소태산 박종빈



1. 서론

19세기 근대 한국 사회는 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치관에 있어서도 일대 변혁을 겪었다. 조선의 통치이념인 정통 성리학적 신념체계를 지키려는 통치세력과 유교를 시대와 민중에 맞게 개혁하려 한 실학세력과의 대립, 서학(西學)의 새로운 도입과 동양의 정신문화와의 갈등,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양반지배세력의 피지배세력에 대한 무리한 과세와 폭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항쟁 유발 등이 그것이다.¹⁾ 또한, 서구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중세 이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발견’이란 미명 하에,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하였으며, 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의 강제적 문호개방이 이루어졌다.

서구 열강과 중국·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위

* **지은이** | **박광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종교학,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The Won Buddhism (Wonbulgyo) of Sot'aesan: A Twentieth-Century Religious Movement in Korea*(『少太山の 圓佛敎: 20세기 한국 종교운동』)를 비롯하여 *Korean Native Religions*, 『한국학 여명기의 인물과 학문』, *The Role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in Promoting World Peace — An Asian Perspective* 등을 공동 저술하였다.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ACRP) 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등의 세계적인 연합종교기구에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 조선조 중후반기에 임궽정(1550년대), 장길산(1690년대), 홍경래(1810년대), 진주민란(임술농민항쟁, 1862년)을 비롯한 농민저항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 정치적 혼란은 가속화되었다. 1811년(순조 11)에 홍경래는 평안도의 몰락한 양반으로 서복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판하며 민란을 일으켰다.

정자들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편향된 의존은 자국에 대한 자주 독립적 통치를 저버리고 강대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한국병합(1910)으로 조선왕조(1392~1910)의 멸망을 공식화하였으며, 한반도는 이후 1945년까지 식민지시대의 고초를 겪고 나서야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조 말기 불교·유교 등의 전통적인 구세(救世) 이념이 약화되었으며, 조선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사상과 문화의 유입은 한국 근·현대사회에 시민운동으로서 실학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양의 전통적 문화와 사상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였다.²⁾ 한국의 신종교가 민중종교 또는 시민종교로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통찰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가운데, 근·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후천개벽사상과 5만년 대운에 대한 이상적 세계관을 펼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東學, 천도교)을 비롯하여,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증산교(甞山敎),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원불교(圓佛敎)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일본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일제 치하의 국가위기상황에서 한국종교는 사회변혁, 사회유지, 일제압력에 굴복, 타협 또는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

수운은 일본의 임진왜란을 통한 조선 침략과,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세력의 진출뿐만 아니라 일본 세력의 확장이 조선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적대적 관점에서 일본을 인식하고 있었다. 증산은 일본에 비해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등을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세력을 막

2) 타리크 알리(Tariq Ali)는 『근본주의의 총돌』에서 서구 기독교 근본주의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을 대규모로 약탈하고 '이교도'를 대량 학살한 것이 '청교도 근본주의'에 바탕한 것이며, 남아메리카에서의 카톨릭 근본주의가 서구유럽의 침략자들을 도와 무수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살해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동시에 카톨릭으로 집단 개종시키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타리크 알리, 『근본주의의 총돌』, 정철수 옮김, 미도, 2003, 430~432쪽 참조).

기 위한 일본의 조선통치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소태산은 일본이 약소국인 조선을 빼앗고 확대하는 부당한 강자임을 지적하였으며, 약자인 조선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검과 저축, 교육기관 설치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인재양성을 해야 하고, 강자와 약자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자리 이타(自利利他)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후천개벽의 낙원세계를 이루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운, 증산, 소태산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비교하고 이들의 일본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방식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2. 수운, 증산, 소태산의 시대적 상황

1) 수운의 시대적 상황

수운은 1824년에 태어나 36세인 1860년 경북 경주 용담(龍潭)에서 ‘동학’이란 이름으로 민중종교 운동을 시작하여 40세인 1864년 참형을 당하기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한국 근·현대사 신종교 운동과 사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수운이 활동하던 시기는 국내에서는 농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이 지배계급의 핍박의 대상이 되면서 민란이 자주 발생했으며, 특히 농민저항운동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1862년의 진주민란이³⁾ 일어난 때이기도 하다.

수운의 나이 20대와 30대 초반 무렵, 당시 아시아권의 정세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구미 열강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영국은 1840년 중국에 대해 아편전쟁을 일으켜 1842년 불평등 조약인 「난징조약」(南京條約)을 강제적으로 체결하였으며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였다.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1850~1864)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영·불연합군의 베이징침략(1856~1860)이 감행되었으며, 중국의 위기는 곧 아시아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경우, 1854년 3월 미국과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1858년 7월 경제적 불

3) 진주민란은 1862년 2월 4일 진주와 인접한 단성현에서 포악한 관리의 핍박에 대한 항거로 일어났으며, 진주민란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경기도·황해도·함경도의 일부를 포함, 전국적으로 70여 곳에서 뒤따라 일어나 양반사회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로 발전했다.

평등 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운은 서구의 침략적 식민주의와 종교사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서학’이라 하였고 이에 대응한 동학을 창시하여 민족중심적·사회개혁적 사상과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다. 한울님을 성심으로 모시는 시천주(侍天主) 사상과 후천개벽(後天開闢),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을 토대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하였다. 수운 이후, 최시형(1827~1898)과 전봉준(1855~1895)에 의해 1890년대 동학혁명이 전개되고, 1905년 손병희(1861~1922)를 중심으로 ‘천도교’로 개칭하여 종교운동이 전개되었다.

2) 증산의 시대적 상황

증산은 1871년에 태어나 31세의 나이인 1901년 전북 모악산에서 자신을 상제라 지칭하여 상제신앙 운동을 9년 동안 전개하다가 1909년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종교운동은 일제시대에는 핵심 주문인 태을주(太乙呪)의⁴⁾ 첫머리 ‘흠치흠치’를 따서 흠치교라 불리기도 했으며, 한국종교학계는 증산 사후 분파된 종단들을 통칭하여 ‘증산교’(甞山敎)라고 부른다. 증산교는 그 창시자인 강일순을 구천상제(九天上帝)로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주재자(主宰者)로 여기며, 후천개벽과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사상을 중심으로 천지공사의 종교적 의례를 통해 선천(先天)을 고쳐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세계를 열고자 하였다.

증산이 살았던 시기는 유럽이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던 때였다. 조선은 대원군 집정 초기 영국, 프랑스, 미국의 강제적인 문화개방 압력에 대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에서 이들을 격퇴하면서 쇄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 이후,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끼인 일본에 의해 1876년 강제로 「조일수호조규」(일

4) 태을주는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흘리치야도래 흘리함리사바하”라는 해석하기 어려운 짧은 글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남 비인지역 김경흔이란 사람이 50년 공부로 신명으로부터 태을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강오는 선조 때 김경소가 불교의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를 변형시켜 태을주 수련 방법을 창안하여 「태을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증산이 발췌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37쪽).

명, 강화도조약)⁵⁾ 체결되면서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통상조약이 1882년에 이루어졌으며 여러 유럽국가와의 통상조약이 잇따랐다.⁶⁾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대원군을 납치하는 등 압력을 가하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고, 조선은 조공관계에서 청의 속국관계로 전락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을⁷⁾ 빌미로 하여, 1894년 6월 청국과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는 7월 말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의 실패,⁸⁾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가 이어졌다.

증산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대한제국 시대이다. 대한제국은 조선조 고종이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조선을 승계하였으며,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 한국병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에 의해서 정치적·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대한제국과 1905년 을사조약을 맺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모든 주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증산은 일본

5) 1876년에 맺어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는 1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조에서 조선의 자주독립국(朝鮮國 自立之邦)임을 밝힌 것은 청국의 직접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위해 부산 초량지역에 일본의 공관을 짓고 개항장으로 개방하도록 하였다.(4조) 또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 편리한 지역 두 곳에 통상을 위한 장소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등(6조) 불평등 조약으로서 조선 경제를 일본자본주의에 예측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조선 연해에서 측량 및 지도 작성의 자유를 보장하고(7조)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 조항을 설정하여(10조) 조선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약이다(申國柱, 『近代朝鮮外交史研究』, 東京: 有信堂, 1966, 54~65쪽; 이종현, 『근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연구소, 1984(서울: 일송정, 1988), 52~56쪽; 日本外務省藏版, 『大日本外交文書』第8卷·第9卷, 昭和15年).

6) 일본,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이후 영국과의 수호통상조약(1883. 11), 독일과의 수호통상조약(1883. 11), 이탈리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84. 6), 러시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84. 7), 프랑스와의 수호통상조약(1886. 6), 오스트리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92. 6), 벨기에와의 수호통상조약(1901. 3), 덴마크와의 수호통상조약(1902. 7) 등이 이루어졌다. (조동걸, 『한국 근현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2003, 7~16쪽; 이종현, 『근대조선역사』, 20~42쪽;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년표』, 단국대출판부, 1984; 노계현, 『한국외교사연구』, 갑인출판사, 1983).

7)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30)』, 사문연구소, 1996).

8) 이선근, 『한국사 현대편』, 진단학회 역음, 을유문화사, 195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13 근대편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류영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 국사편찬위원회, 『갑오경장』,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2000; 김영호, 『개화사상·갑신정변·갑오경장』,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정창렬,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제2판), 지식산업사, 1987.

경찰에 잡혀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서구유럽과 러시아의 세력을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겼고 조선이 일본에 의해 일정 기간 통치를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겼다.

3) 소태산의 시대적 상황

소태산은 1891년에 태어나 26세의 젊은 나이인 1916년에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광 백수면 길룡리를 중심으로 원불교의 종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4세 때 동학군이 왔다는 경보를 하여 부친을 크게 놀라게 한 일로 보아 동학혁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가 20세로 구도 과정에 있던 1910년에 한국병합이 이루어져 한민족의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26세에 자신의 고향에서 종교운동을 시작한 소태산은 1924년 익산 신흥리에 근거지를 두고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를 조직하여 종교활동을 공식화하였다. 1943년 53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기까지 그의 종교활동은 일제 치하에서 이루어졌다.⁹⁾ 소태산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를 내걸고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후천개벽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는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소태산이 활동하던 일제치하의 대체로 무단통치기(1910~1919), 문화정치기(1920~1930), 침략전쟁동원기(1930~1945)로 구분된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는 전시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혹독한 침탈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일제의 종교와 관련한 탄압정책을 주로 언급하자면,¹⁰⁾ 식민지화의 준비기로서 통감정치기(1904~1910)에 통감부는 일본종교를 한국병합에 유리하게 이

9) 해방 이후, 소태산의 수제자인 정산(鼎山) 송규(宋奎, 1900~1962)에 의해 1948년에 ‘원불교’라 개칭하여 사용하였다.
 10) 식민지 시대의 종교정책일반에 관한 연구로 강위조, 『일본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김승태 옮김, 기독교문사, 1990; 이홍범, 『한국에 행하여진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 金知見 外 編, 『新羅弘教研究』, 東京, 山喜房叢書林, 1973; 박승길, 『일제무단통치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 『한국사 회사연구논문집』 제35집, 문학과지성사, 1992 등이 있다. 불교관계 연구로는 정광호, 『일제의 종교정책과 식민지불교』, 『한국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임혜봉, 『친일불교론』, (상·하), 민족사, 1993. 기독교 관계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신개정판), 연세대출판부, 1993; 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I, II), 기독교문사, 1991; 臧田雅彦,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기독교신문사, 1991 등이 있다.

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을¹¹⁾ 제정하여 모든 종교활동에 대하여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규칙은 일제의 신도, 불교, 기타 종교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일본인이 조선의 사원관리 위축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제4조는 일제의 조선종교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¹²⁾ 이와 같이 통감부는 일본종교의 한국 내 진출을 적극 장려하여 일본종교를 한국침략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내 종교들을 회유하여 그들이 식민지화에 동의하도록 유인하고자 하였다.¹³⁾

한국병합 후 일본은 1915년 일본의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신앙을 강요하였고, 불교에 대해서는 사찰령을 시행하여 대처승제도를 도입하고 친일승려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였다. 일제는 한국불교계의 총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중앙통제를 쉽게 하려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일본식 황도불교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특히, 19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조리 해산시켰으며, 1930년대 후반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민족종교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총독 미나미(南次郎)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타인을 참배시키지 않는 행위는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이며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법규를 내세워 민족종교 뿐만 아니라 공인된 종교까지도 탄압하였다.

일제는 한국의 민족종교들을 ‘유사종교’(類似宗教)라고 함으로써 민족종교의 신앙과 종교문화를 뿌리째 부정하였다.¹⁴⁾ 일제는 당시 대중교를 종교단체로 가장한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불법화시켰으며 국내에서의 종교단체 등록을 거부

11) 통감부령 제45호로 1907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2)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63~64쪽 참조.

13) 일본불교 니치렌종(日蓮宗)의 사노 젠타(佐野前勳)는 1898년 국왕에게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여 이를 승낙 받았고 일본 소토종(曹洞宗)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1910년 전국 72개 사찰이 가입된 조선불교 원종총무원과 일본소토종의 연합조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한국불교계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신순철,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불교사상』 17~18집; 한석희, 앞의 책, 15~65쪽 참조).

14) 조선총독부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에게 의뢰하여 한국의 민족종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살을 위한 작업으로 총 5개파 66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1935년에 『朝鮮의類似宗教』(朝鮮總督府 第四十二輯)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 朝鮮總督府 第四十二輯, 京城:大海堂, 昭和10年(1935); 국역본은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하여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계나 무속계의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활동은 모두 중국의 성자와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을 곁들여서 신앙해야만 종교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¹⁵⁾ 민족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사이비종교’ 또는 ‘유사종교’라는 명칭을 부과하여 탄압을 하였다.

3. 수운, 증산, 소태산의 일본관

수운은 서구유럽과 서학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동학을 주창하여 동양, 특히 한국의 문화와 사상체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했다. 수운의 척왜(斥倭)사상은 일본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원수로 여겨 배척하였으나, 그와는 반대로 증산은 서구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세력과 일본의 일시적 조선 통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태산은 일제치하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당시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경제적 수탈을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신, 육신, 물질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19세기 국제정세의 혼란기와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지라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부모국이 될 것을 예언하고,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수운의 적대적 일본관

수운은 일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 수운은 자신이 지은 「안심가」(安心歌) 8장에서 일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7대 조 최진립(崔震立)이 임진왜란·병자호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여 사후에 병조판서의 벼슬과 정무공(貞武公)의 시호를 받았던 것에 대해¹⁶⁾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칭송하여 “우리 선조가 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 절개는 용산(龍山)

15)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451쪽 각주 511 참조.

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라고¹⁷⁾ 글을 쓰기도 하였다.

수운은 ‘안심가’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다.

가련(可憐)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가련하다
전세임진(前世壬辰)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개벽(開闢) 아닐런가
요순성세(堯舜聖世) 다시와서 국태민안(國泰民安) 되지마는
기험(崎險)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我國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왜적(倭賊)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
너희역시 하륙(下陸)해서 무슨은덕(恩德) 있었던고
전세임진(前世壬辰) 그때라도 오성한음(鰲城漢陰) 없었으면
옥새보전(玉璽保全) 뉘가할꼬 아국명현(我國名賢) 다시없다
나도또한 한울님께 옥새보전 봉명(奉命)하네
무병지란(無兵之亂) 지낸후에 살아나는 인생(人生)들은
한울님께 복록정(福祿定)해 수명(壽命)을랑 내게비네
내나라 무슨운수(運數) 그다지 기험(崎險)할꼬
거룩한 내집부녀(婦女) 자세(仔細)보고 안심(安心)하소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16) 최진립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동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 1594년(선조 27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부장(部將)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받지 않았다. 1597년(선조 30년)에 왜병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자 그는 결사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워 큰 공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는 선무종훈(宣武從勳)을 받게 되었고 벼슬은 병조참판(兵曹參判), 경기수사(京畿水使)에 이르렀다. 그 뒤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나 드디어 임금이 머물러 있는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공주 영장(營將)으로서 69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출전하여 용인(龍仁)의 협천(險川);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으로 진격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마침내 전사하였다. 그의 충의 때문에 나라에서는 병조판서의 벼슬과 정무공(貞武公)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다. 1699년(숙종 25년)에 그를 모시기 위해 경주의 남쪽에 있는 용산 밑(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에 사당이 세워졌고 1711년(숙종 37년)에 임금이 여기에 송열사(崇烈祠)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그 뒤 이것이 용산서원(龍山書院)이 되어 1870년(고종 7년)에 이르렀다(최동희, 『수운(水雲)의 생애』,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1994).

17) 최제우, 『수덕문』, 『동경대전』, 1880.

동학혁명 직전의 보은취회에서 발표한 포고문의 “이제 일본과 다른 나라의 반역자와 도적들이 이 국가에 깊숙이 뿌리박고…… 이제 우리 수만 동지는 죽기로 각오하고 함께 뭉쳐 왜적과 양인을 물리쳐 국가에 충성하리라”¹⁹⁾ 한 내용에서 강력한 척왜(斥倭) 척양(斥洋)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동학혁명의 봉기 당초에는 봉건적 수탈을 상대로 한 혁명운동이었던 것인데 후기의 봉기는 그 봉건적 수탈체제와 야합하여 침략해 오는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혁명에 이어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천도교의 농민운동이 일제하에서 줄곧 식민성 수탈체제에 대한 극복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2) 증산의 우호적 일본관

증산이 1900년대 초 서구열강의 침략적 식민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중국 또는 러시아보다는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좋다고 한 내용에서²⁰⁾ 그의 국제정세와 일본에 대한 견해를 살필 수 있다. 중국과 관련해 청일전쟁에²¹⁾ 관한 내용과 중국이 편안함으로써 조선이 부흥할 것과 청국광서제(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는 황극신(皇極神)을 조선에 옮겨와 혼란한 세상을 바로하고자 한 내용,²²⁾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²³⁾ 한 내용 등에서 그는 앞으로 조선이 중국을 능가하는 상등(上等) 국가가 될 것임을 예언하였다.

증산은 서구 세력에 대해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서교를 지칭하는 기독교가 조선의 신명을 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²⁴⁾ 인종차별로 인해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학대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증산은 청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과의 국제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동학란기록』 상권, 1965, 108~109쪽.

2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典經)』,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초판 1974), 교문 1장 12(이하 『전경』이라 칭함).

21)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청일 사이에 싸움이 두 번 나리니 첫 번째는 청국이 패하리라. 다시 일어나는 싸움은 십년이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이 쫓겨 들어가려니와 호병(胡兵)이 들어오리라. 그러나 한강(漢江)이남은 범치 못하리라”(『전경』 예시 26장).

22) 『전경』 공사 3장 22.

23) 『전경』 공사 3장 18.

24)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여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전경』 교법 1장 66).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남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命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 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나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다.²⁵⁾

증산은 서양세력을 일본세력보다 위협하다고 여겼다. 계묘년(1903년) 여름에 “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²⁶⁾ 한 내용과 동양(東洋)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세력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²⁷⁾

러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에 의해 조선이 침탈을 당한 암울한 당시의 현실에 대해 주인이 잠시 두 신선을 초대하여 바둑을 두며 놀다 간 형국으로 비유해²⁸⁾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강돈구는 동학과 증산교가 일본의 세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동학이 좀더 능동적으로 일본에 대해 처신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었던 데 비해, 증산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증산교는 일본에 대해 좀더 수동적인 처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²⁹⁾ 평가하고 있다.

25) 『전경』 공사 2장 4.

26) 『전경』 예시 23.

27)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구 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다”(『전경』 예시 24).

28) 『전경』 예시 28.

일제의 조선침략 시기에 살았던 증산은 조선에 대한 일본통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증산은 일본의 세력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힘이 없는 조선을 서양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기간 일본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서구열강보다는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의 맺어진 척을 풀기 위해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일본관은 수운의 일본관과는 전혀 다르게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 가운데, 증산은 후천 선경 시대의 중심된 축을 한반도로 보았으며, 한민족이 일제치하의 위태로운 국내 상황 속에서 한국이 상등국으로 발전할 것임을 가르치고³⁰⁾ 조선의 국운을 돌려 놓기 위한 의례를 행하는 등³¹⁾ 민족 주체의식과 희망을 불어넣는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3) 소태산의 강약진화적 일본관

소태산은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1916년부터 1943년까지 28년 동안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통해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치하라는 극히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태산이 일본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합 후 조선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고자 한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82호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과 제83호 「포교규칙」(布教規則)을 공포하여 종교통제안을 만들었다. 유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일본의 신도는 공인종교로 인정하였으며, 총독부 학무국에 중무과를 설치하여 이들 공인된 종교단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족종교들에 대해서는 「포교규칙」 제15조에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을 경우 종교 유사한 단

29) 강돈구, 「근대 신종교와 민족주의—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오성 프린팅, 2005, 200쪽.

30)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중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 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다”(『전경』 예시 29).

31) 『전경』 공사 2장 3.

체라 인정한 것에 본령을 준용함이 가함.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함”이라고 규정하여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치하 중반기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소태산의 ‘최초법어’ 가운데, 「강자·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일제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면치 못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소태산은 1928년 2월 서울의 한 교도(敎徒) 집에서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의 내용을 다시 약자인 갑동리(甲洞理)와 강자인 을동리(乙洞理)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소태산은 당시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과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과 식민지 상태의 한국을 비롯한 약소국이 어떻게 강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설교하였다.

“……약자를 업수이만 여겨 차차 을동리 사람들이 갑동리로 와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둘러도 먹고 전곡재산(錢穀財産)도 빼앗으며 토지전답(土地田畓)도 저희가 받아 먹고도 유위부족(猶爲不足)해야 무식자(無識者)니 미개자(未開者)니 야만인(野蠻人)이니 하고 가진 학대(虐待)를 하여……”라고 한 소태산의 비유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국한하기보다는 열강이 약소국에 취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적실하게 묘사한 것이다. 또한 약자인 갑동리에게는 “무조건 대항하지 말고 때라도 맞고 어리석고 못난 체하여 강자를 안심시키고 근검과 저축, 교육기관 설치, 단결, 공익심 등으로 부지런히 힘을 기르라”고³²⁾ 하였다. 그는 일제의 압박된 상황을 파악하고 약자가 강자되는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갑동리에 참정신이 박히고 대강의 예산이라도 있는 자가 있으면 생명 하나 없앨 일 없이 강자가 꼭 되는 법이 있나니라. 그 법은…… 외면은 어리석고 못난 체를 하여 강자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고 내용으로 급히 할 일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32)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불법연구회 월말통신』 제1호, 1928; 『원불교 교고총간』 1권, 12쪽;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원불교 교전』, 85~86쪽.

돈벌기를 주장하고 배우기를 주장하며 다만 몇 사람씩이라도 편심을 버리고 단심(團心) 만들기를 주장하여 자본금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가지고 가르치며 배우고 서로 권면하되 우리는 돈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약자가 된 것이니 아무쪼록 각성하여 근검저축하며,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 동리가 일심단체가 되고 보면 우리는 을동리 이상의 강자가 되자 하며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가르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쳐서 서로 막혔던 울타리를 트며 개인주의를 버리고 단체주의를 하여 한 동리를 위할 만한 공공심이 생긴다면 그 동리는 요부(饒富)할 것이요 지식도 여여하게 될 것이니라…….³³⁾

소태산은 강자가 어떻게 강자가 되었는지를 배우고, 경제적 자립, 교육의 필요성, 단결력과 공공심을 통해 전체적인 힘을 기를 때에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약소국으로서 국가적인 경제력 향상과 인재양성에 힘쓰고 단결된 힘을 내적으로 갖출 때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

소태산은 강자와 약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자리아타의 상보적 관계로써 인류의 평화문명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강자와 약자가 다함께 발전할 수 있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대 늘 저 약자를 도와 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복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先進者)요 선각자(先覺者)로 받아들여질 것이어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

33) 원불교 정회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1권, 이라: 원광사, 1968, 12~13쪽.

의 지위에 서게 되며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에 더 도와 주고 약할 때에 더 보살피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³⁴⁾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도를 다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개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³⁵⁾

소태산과 수운은 일본관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 수운은 일본을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멀해야 할 원수로 여긴 반면, 소태산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닌 강자와 약자의 조화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소태산은 중국의 진시황, 독일의 카이젤 등을 강자가 약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 보았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일본이 강자로서 약자의 식량과 재산을 빼앗고 학대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가르친 것이라 여겨진다.

소태산은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아타 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 여건을 따라 강자와 약자의 차별이 생겨나게 된다고 보

34) 『대종경』, 인도품 26장, 197쪽.

35) 『대종경』, 인도품 24장, 196쪽.

고, 이러한 차별의 현상 속에서 강자는 강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약자를 강자가 되도록 도와줄 때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는 약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강자를 배워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노력할 때에 약자가 변해 강자가 된다고 하였다.³⁶⁾ 강자는 약자를 친자녀와 같이, 약자는 강자를 부모처럼 여겨 서로 마음을 화합할 때 비로소 세상의 평화가 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태산의 입장에 대해, 강돈구는 “원불교의 일체에 대한 태도는 원불교가 일체를 강자로 인정하고 강자인 일체로 하여금 약자인 우리 민족을 이끌어서 강자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약자인 우리 민족은 강자인 일체의 도움을 통해서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³⁷⁾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강자와 약자를 한국과 일본에 국한해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강과 약의 대립적 구조의 문제로 야기된 인류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상보적 존재로서 상호간에 상생해야 할 보편적 원리임을 간과한 데서 나온 제한적인 평가이다. 소태산은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에서 강자와 약자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자리아타의 조화로운 상생의 관계를 설정하고 강·약의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류문명의 대립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4. 결론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유럽에 전제주의와 식민주의가 팽배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한국 지배를 위해 전쟁과 침략을 벌이던 시기, 한국 신종교 운동의 선각자들은 대사회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변동에 동참했다. 수운, 증산, 소태산은 한민족이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 있었고, 식민통치를 받았던 암울한 시대에 신종교 운동을 전개했으며, 다양한 종교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36)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원불교 교전』, 85~86쪽.

37) 강돈구, 「근대 신종교의 민족주의 2: 대종교·원불교·교무교회주의를 중심으로」,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2』, 조은문화사, 2006, 250~251쪽.

수운, 증산, 소태산의 일본관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수운은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임진왜란 등 조선침략과 한국인의 희생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일본을 원수로 설정하고 멀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증산은 일본을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증산은 러시아, 중국, 서구유럽보다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여겼다. 어떻게 보면, 열강의 침략적 식민주의를 부정하는 ‘수탈론’(收奪論)³⁸⁾과³⁸⁾ 입장이 다른 ‘식민지 근대화론’과 견해가 유사하다.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이 열강의 약소국 침략이나 식민지정착을 수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진 열강의 통치에 의해 식민지 약소국은 철도와 도로·공장 등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오히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증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통치에 대해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라고 하여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중요한 일꾼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소태산은 일제치하의 한국의 식민지 상황을 일본이라는 강자가 함부로 약자인 한국을 수탈하는 ‘수탈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서의 부당한 식민지적 지배구조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강자가 부당한 강(強)을 사용하여 약자가 된 사례, 약자가 힘도 없이 강자에게 무턱대고 덤벼 실패한 사례, 약자가 힘을 길러 강자가 된 사례,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 등을 밝혔다. 이는 서구유럽 국가와 일본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움의 과정과 왜 한민족이 약자로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한민족이 경제적 자립, 인재양성, 단결력 등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내적

38)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체제는 식민지 모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한민족의 희생과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한 부당한 침략적 식민지배라 보는 것이 ‘수탈론’적 관점이다.

으로 실천한 종교운동이라 평가된다.

수운, 증산, 소태산은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개혁사상을 주창하고 5만 년 대운의 후천개벽시대에 음양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한다는 세계관을 공유하였다. 조선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외세, 서학, 일본에 대한 이들의 대응 차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며, 그들의 종교사상의 발전과 종교운동의 전개 양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운, 증산, 소태산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후천선경의 도래, 한민족의 도덕의 부모국,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의 부상을 예언하고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한민족이라는 새로운 부족주의적 동질감을 강화하여 배타적인 집단을 만들 고자 한 것이 아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민족의 공동체 의식의 지나친 강조가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배척 내지는 침략하여 말살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것의 폐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한민족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도출하면서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넘어 일본까지도 포용하여 후천개벽의 평화문명을 지향 하려고 한 것으로 평가된다.

초록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 신채호의 일본관 | 박노자

투고일자: 2010년 5월 1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본 논문은 신채호의 일본관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채호는 통념적으로 ‘항일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일본관은 꼭 일본에 대한 적대심만을 내포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기의 신채호는 ‘개화선배’로서의 일본의 ‘주체적 외부 문명 수용’ 등을 적지 않게 흠모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외부 문명 모방 지향’, 그리고 전근대적 한국 사회의 “노예성” 등을 부정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신채호의 시각은, 그 의도는 비록 신속한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 기반했지만 그 형태는 사실상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정체성론”, “타율성론”과 일맥상통했다. 양쪽의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사회, 문화 측면에서 양쪽은 근대지상주의의 영향권에 속했다. 1920년대의 무정부주의자 신채호는 대체로 더 이상 일본을 ‘모델’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하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와 동시에 고대사학자로서의 신채호는 일본을 “백제의 제자”, 백제문화의 일종의 “연장”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한국인의 ‘민족적 자랑’으로 인식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남북한 사학에서 그대로 계승, 발전됐다. 고대 일본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과 관련된 그의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백제와 일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 자체는 당시 일본 사학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소 균형을 잃은 신채호 식의 일본관은 이제 남한 사학에서 상당 부분 극복됐지만, 일본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최근 일각의 평가에서도 신채호와 같은 근대지상주의의 잔영(殘影)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신채호, 민족주의, 문명개화론, 사회진화론, 일본

한국병합 전후 한국신종교 창시자들의 일본관: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 박광수

투고일자: 2010년 6월 2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본고에서는 한국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東學, 천도교)을 비롯하여, 증산(甌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증산교(甌山敎),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원불교(圓佛敎)를 중심으로, 한국병합(1910년)을 전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인, 일본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방식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수운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세력뿐만 아니라 일본세력의 확장은 조선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운은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임진왜란 등 조선침략과 한국인의 희생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일본을 원수로 설

정하고 멸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수운의 이러한 사상은 후래 제자들이 동학혁명(1890~94)과 삼일독립운동(1919)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증산은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에 비해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등을 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보았으며 이들의 세력을 막기 위한 일본의 조선통치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일제 식민지 상황의 극복은 상제의 권능과 후천도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소태산은 일제 치하의 한국의 식민지 상황을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부당한 약탈로 보고 있다. 서구유럽국가와 일본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움의 과정과 왜 한민족이 약자로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동시에 요구한다. 약자인 조선이 강자가 되기 위해 근검과 저축을 통한 경제적 자립, 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인재양성 및 구성원들의 단결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자와 약자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자리아타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후천개벽의 낙원세계를 이루는 길임을 밝히면서 이를 이루기 위한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운, 증산, 소태산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후천선경 도래, 한민족의 도덕의 부모국,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의 부상을 예언하고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민족이라는 새로운 부족주의적 동질감을 강화해 배타적 집단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한민족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역할도 출하면서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넘어 일본까지도 포용해 후천개벽의 평화문명을 지향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수운, 증산, 소태산, 한국병합, 동학, 증산교, 원불교,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꽃과 칼을 동시에 사랑하는 민족: 윤치호가 본 일본 | 박지향

투고일자: 2010년 5월 25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친일파로 분류되는 윤치호(1865~1945)가 일본에 대하여 가졌던 정서는 흠모와 증오가 교차하는 복잡한 것이었다. 이 글은 윤치호가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0여 년에 걸쳐 쓴 일기를 토대로 그의 사상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일본인의 성정과 식민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후, 태평양전쟁기 협력행위의 근거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대일관을 정리해 본다.

윤치호는 한마디로 일본인을 대단히 편협하고 왜소하며 힘에만 의지하려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감탄할 만한 일본인의 장점은 상무정신, 즉 전사적 정신이다. 윤치호가 볼 때 “천황으로부터 오두막의 가장 가난한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본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의 이상이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싸우는 정신이다. 반면, 조선왕조는 500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전사적 정신을 뿌리째 뽑아버림으로써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본 따 전사적 정신을 되찾기를 바랐고 그것이 태평양전쟁기에 조선인 지원병제에 찬성한 하나의 이유였다.

윤치호에게 일본은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 준 반면교사였